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5, Vol. 34, No. 1, 17-36

한국판 패배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및 패배감과 속박감의 요인구조

이 소 영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조 현 주 /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권 정 혜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이 종 선†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한 패배감 척도를 번안하여 한국판 패배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고, 단일 요인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패배감과 속박감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대학생들은 패배감 및 속박감, 관련 변인들로 구성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연구1의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패배감은 12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고(이질적 4문항 제외),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및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패배감 척도의 내적일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양호하였다. 또한 한국판 패배감 척도는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 우울, 불안, 자살사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고,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우울, 불안, 자살사고에 대해 유의한 증분 설명량을 보여 증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연구2의 평행분석 결과 패배감과 속박감 척도는 단일 요인이 아닌 다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패배감, 속박감, 신뢰도, 타당도, 요인구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종선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BK21PLUS 마음 뇌 융합 심리학 사업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Tel : 02-3290-1636 / E-mail : sunny597@gmail.com

www.kci.go.kr

패배감(defeat)은 우울증의 사회지위 이론(social rank theory)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물질적 혹은 사회적 자원을 얻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거나 중요한 지위나 역할을 상실했을 때 경험될 수 있다(Gilbert, Allan, Brough, Melley, & Miles, 2002). 하지만 패배감은 객관적인 사건 자체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부정적인 신념과 연관된 주관적 지각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Tang, Goodchild, Hester, & Salkovskis, 2010; Gilbert & Miles, 2000), Tang과 동료들(2010)은 패배감이 인지적 요인이기는 하지만 재앙화(catastrophizing)와는 다른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한 패배감은 우울이나 불안, 무망감, 복종행동, 자살과 같은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Gilbert & Allan, 1998; Gilbert et al., 2002), 그 중에서도 특히 우울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Gilbert & Miles, 2000; Tang et al., 2010). Gilbert 등(2002)의 연구결과 패배감은 우울 및 불안관련 변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을 통제한 후에는 여전히 패배감과 우울이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우울을 통제한 후에는 패배감과 불안 변인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서도 패배감이 불안에 주는 영향에 비해 무쾌감증에 주는 영향력이 더 컸다. 이렇듯 패배감은 사회적 체계 내에서의 지위 상실이나 우울, 무쾌감증(anhedonia)과 연관된 핵심적인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패배감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윤영, 조현주, 권정혜 및 이종선(2013)은 속박감과 패배감을 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속박패배감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속박패배감이 우울취약성과 자살사고 사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고 하였고, 이소영, 조현주, 권정혜 및 이종선(2014)은 속박감과 패배감을 개별적인 요인으로 보고 연구한 결과 패배감이 속박감을 매개로 하여 우울이나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패배감과 함께 우울 등 정신병리 연구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속박감(entrapment)은, 현재 처해진 어려운 상황이나 내면의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속박감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외적 속박감과 내면의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각하는 내적 속박감으로 나뉘는데, 특히 외적 속박감은 자살을 예측하는 위험변인으로 제안되어 왔다(Taylor, Wood, Gooding, & Tarrier, 2010; 이종선, 강민철, 조현주, 2012).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에게는 우울에 대해 내적 속박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반면 여학생에게는 외적 속박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성별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불안에는 남녀 모두에게 내적 속박감이 가장 큰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나(천숙희, 2012)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이 서로 다른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배감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속박감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적 속박감이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권정혜, 이소영, 200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속박감이 우울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천숙희, 2008), 속박감이 스트레스와 우울 사

www.kci.go.kr

이를 매개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을 뿐(박영주, 신나미, 한금선, 강현철, 천숙희, 신현정, 2011) 국내에 속박감과 관련된 연구 또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패배감·속박감과 불안, 우울, 자살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Gilbert & Allan, 1998; Gilbert & Miles, 2000; Gilbert et al., 2002; Taylor. Gooding, Wood, & Tarrier, 2011), 이에서 짐작해볼 수 있듯이 주요한 정신병리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패배감과 속박감은 매우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신병리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부 연구자들이 패배감 척도를 단순 번안하여 연구에 활용하였을 뿐 아직 국내에서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최근 속박감 척도만이 이종선과 조현주(2012)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다.

한편, 패배감과 속박감이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개별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단일 요인인지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Taylor, Wood, Gooding, Johnson, & Tarrier, 2009), 국내외의 연구에서 아직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패배감과 속박감 척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속박감과 패배감의 개념을 명확히 해 줄 요인구조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념적으로는, 패배감은 목표나 지위를 상실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속박감은 이러한 패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황에 대한 초기 평가에 대한 결과로 패배감이 먼저 지각된 후 그 다음 속박감이 따라오게 된다(Taylor et al., 2011). 이러한 개념은 닭이나 쥐, 원숭이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연구에서 처음 발단이 된 것으로, 공격적인 경쟁상대에게 패배한 후 도망가고 싶으나 도망가지 못하는(arrested flight) 동물들의 행동 연구에서 비롯되었다(Taylor et al., 2011). 하지만 전술되었듯이 속박감과 패배감이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관련이 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요인인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 명확치 않다. Rasmussen 등(2010)은 패배감과 속박감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제안하는 Williams(2001)의 고통호소 모델(Cry of Pain Model: CoP 모델)을 적용하여, 패배감이 속박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도식을 설정하고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Rasmussen 등, 2010에서 재인용). 또한 Taylor 등(2011)이 종합해 놓은 패배감, 속박감, 그리고 다양한 정신병리(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자살)와의 관계에 대한 비자발적 패배 전략(Involuntary Defeat Strategy: IDS) 모델에서도 속박감과 패배감을 한 요인으로 묶지 않고 서로 다른 개념으로 도식화해 놓았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패배감의 결과로 나타나는 IDS 반응(부정적 인지, 낮은 긍정정서, 행동억제나 과경계)은 초기의 패배 경험을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속박감을 만들고, 속박감은 초기의 패배감을 더 유지되도록 만듦으로써 만성적이고 과도한 역기능적인 IDS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들을 종합해 볼 때 패배감과 속박감은 서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요인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복적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O'Connor, Smyth, Ferguson, Ryan 및 Williams(2013)의 연구에서도 속박감이 4년 후의 자살행동에 대한 유일한 예측인자로 나타나 저자들은 패배감과 속박감을 분리하여

www.kci.go.kr

다루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논의하였고, 이소영 등(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패배감은 속박감을 매개로 하여서만 우울이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요인이 서로 다른 개념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패배감과 속박감은 서로 연관된 개념일 수는 있으나 서로 다른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외부 대상자를 고려하여 진행된 동물 연구에서와 달리 내적인 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명확히 구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패배감과 속박감이 개념적으로 유사하고 같은 인지적 기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일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Rooke & Birchwood, 1998; Johnson, Gooding, & Tarrier, 2008). Taylor와 동료들(2009)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였으며, 이후 연구들에서는 패배감과 속박감을 단일 요인으로 개념화하여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Taylor et al., 2010; 최윤영 등,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패배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 보고자하며, 패배감과 속박감의 요인구조를 파악하여 두 개념이 단일 요인인지 아니면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요인인지에 대해 확인을 해 보고자 한다. 패배감과 속박감이 우울이나 불안, 자살과 같은 주요 정신병리 현상의 이해와 치료적 개입에 중요한 변인임을 고려할 때, 두 변인의 타당도 확보와 더불어 요인구조 및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1: 패배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패배감은 자신의 현재 상태나 지위에 대한 상실, 현재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시도와 관련된 실패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나타내는 것이며, Gilbert와 Allan(1998)에 의해 척도가 개발된 이후 우울, 불안, 자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병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Gilbert & Miles, 2000; Gilbert et al., 2002; Taylor et al., 2011). 많은 연구자들이 동물의 패배감와 인간의 우울이 유사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도 패배감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드물던 시기에, Gilbert와 Allan(1998)은 패배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패배감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Gilbert와 Allan(1998)은 대학생 집단과 우울 집단을 대상으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내적 일치도는 대학생 집단에서 .94, 우울 집단에서 .93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대학생과 우울 집단 모두에서 패배감은 2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역채점 문항이 별도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스크리 검사를 토대로 재분석한 결과 단일 요인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요인 부하량은 모두 .56 이상(대학생집단) 또는 .46 이상(우울집단)이었으며, 전체 설명변량은 대학생 집단이 52.8%, 우울 집단이 51.2%로 나타났다. 또한 패배감은 우울이나 무망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고, 패배감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사회비교, 복종행동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우울이나 무망감을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와 증분타당도 모두 검증되었다. 터키에서도 패배감 척도의 타당화

www.kci.go.kr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요인이 산출되었고 요인 부하량은 .31~.76 범위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88로 나타났다 (Ahmet, Recep, Nihan, 및 Ümran, 2013).

그러나 패배감이 정신병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연구에서는 단순 번안만 이루어져 있을 뿐 패배감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배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에 동의한 대학생들 중 불성실한 답변 (모든 항목에 같은 번호)이나 일부 질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8명을 제외한 남학생 159명, 여학생 128명이 포함되었다. 남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2.50세(표준편차 1.80), 여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0.78세(표준편차 3.31)였다.

측정도구

패배감 척도(Defeat Scale: DS)

패배감 척도는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 척도 사용에 대한 원저자들의 승인 후 교신저자가 영어판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중 언어자의 역번역 과정을 거친 다음, 차이가 나는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 패배감 척도는 "나는 세상에서 내가 설 자리를 잃어온 것 같다." 등 총 16문항(1~5점 범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현재 상태나 지위에 대한 상실 및 현재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시도와 관련된 실패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패배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다.

속박감 척도(Entrapment Scale: ES)

속박감 척도는 현재 처해 있는 부정적 상황이나 관계,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Gilbert와 Allen(1998)이 개발하고 이종선과 조현주(2012)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속박감 척도는 "나는 내 생각들과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내적 속박감(Internal Entrapment) 척도와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외적 속박감(External Entrapment) 척도로 나뉜다. 내적 속박감 척도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속박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적 속박감 척도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척도는 6문항,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5점 범위), 점수가 높을수록 속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 α는 내적속박감이 .88, 외적속박감이 .91로 나타났다.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일반인의 임상수준의 불안 및 우울을 측정

www.kci.go.kr

하기 위해 사용하는 병원 불안-우울 척도(HADS)를 사용하였다.

HADS는 Zigmond와 Snaith(1983)가 개발하고 오세만, 민경준 및 박두병(1999)이 표준화한 척도로, 우울 7개 문항("나는 기력이 떨어진 것 같다")과 불안 7개 문항("나는 초조하고 두렵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0~3점 범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과 불안 척도 모두 각 8점 이상일 때 유의한 수준의 우울 혹은 불안으로 해석한다(Tang et al., 2010).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 α는 우울 척도가 .79, 불안 척도가 .86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Beck, Kovacs 및 Weissman(1979)이 자살생각 및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박광배와 신민섭(1990)이 번안하여 자기보고식으로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려는 욕구가 있는가?"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0~2점 범위)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패배감 척도 사용에 대한 원저자의 승인 및 번역, 역번역 작업을 통한 최종문항 완성 후, 최종적으로 패배감 척도 및 관련 척도들이 연구 동의서와 함께 학생들에게 전달되었고, 동의서에 승인한 자료만 연구에 포함하였다. 최종 자료는 다시 무선화하여 두 표본으로 나눈 뒤, 탐색적 요인분석(144명)과 확인적 요인분석(143명)에 각각 사용되었다. 또한 검사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1차 시기에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4주 간격으로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패배감 척도 총 16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를 확인하였고,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Gilbert와 Allan(1998)의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및 사교회전(Oblimin) 방식을 선택하였으나, 주성분분석 방식이 최근 적절한 요인분석으로 간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Fabrige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본 연구에서는 요인 추출 방법으로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사교회전(Oblimin)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측정모형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수렴 및 공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증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주축분해법(오블리민 회전)을 실시한 결과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aiser-Meyer-Olkin (KMO) 측정치는 .90으로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도 χ^2(120)= 1367.86, p<.001로 나타나 본 연구의

www.kci.go.kr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고유값(Eigenvalue)을 확인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산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의 설명량은 47.65%, 두 번째 요인의 설명량은 12.23%로,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59.88%이었다. 첫 번째 요인은 패배감과 관련된 13문항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요인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역채점 문항인 세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별 요인 부하량이 표 1에 제시되었다.

패배감 척도를 만든 Gilbert와 Allan(1998)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학생 집단과 우울 집단 모두에서 2요인이 산출되었으나(두 번째 요인은 세 개의 역채점 문항임), 스크리 검사를 토대로 단일요인으로 지정 후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패배했다는 것(1요인)과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2요인)은 서로 다른 개념일 수 있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도 역채점 세 개 문

표 1. 패배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평균

문항번호		요인1	요인2	단일요인
1.	나는 내 인생에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다.	.36	-.38	제외
3.	나는 내 삶에 패배당한 것 같다.	**.70**		.71
5.	나는 세상에서 내가 설 자리를 잃어온 것 같다.	**.77**		.78
6.	나는 동네북처럼 취급당해온 것 같다.	**.63**		.61
7.	나는 무력하다고 느낀다.	**.74**		.78
8.	나는 예전과 달리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	**.71**		.73
10.	나는 밑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느낌이다.	**.79**		.78
11.	나는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기 힘들만큼 지친 것 같다.	**.62**		.56
12.	나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중 하나인 것 같다.	**.84**		.84
13.	나는 포기해 온 것 같다.	**.55**		.64
14.	나는 완전히 지쳤고 패배한 것처럼 느껴진다.	**.86**		.86
15.	나는 인생의 중요한 싸움들에서 져온 것 같다.	**.66**		.73
16.	나는 나한테 더 이상 맞설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낀다.	**.82**		.77
2.(R)	나는 성공한 사람인 것 같다.		**.93**	제외
4.(R)	나는 기본적으로 승자인 것 같다.		**.77**	제외
9.(R)	나는 어떤 일이 주어져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55**	제외
	패배감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30.09 (7.80)		18.96 (7.81)

(R)=역채점 문항임.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제시하였음.

www.kci.go.kr

항은 문항-총점 간 상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06~.16) 패배감 척도와는 이질적인 특성으로 여겨진다(2, 4, 9번 문항). 또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0 미만이거나 각 요인의 부하량의 차이가 .10 미만의 경우는 문항이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데(Tedesch & Calhoun, 1996), 본 연구에서는 1번 문항이 이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이들 4개 문항(1, 2, 4, 9문항)을 제외한 후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 요인이 산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57.89%(고유값=6.95)였다.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56~.86 범위에 있었다(표 1).

내적 일치도

한국판 패배감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내적 일치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12문항의 한국판 패배감 척도의 Cronbach α는 .93으로 나타나 높은 내적 일치도를 입증하였다. 한국판 패배감 척도의 문항 총점과 개별 문항 간의 상관(Item Total Correlation: ITC)은 .66~.85의 분포를 나타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한국판 패배감 척도의 시간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시기에 검사를 실시한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4주 간격으로 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본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6(p<.001)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단일 요인구조

표 2. 한국판 패배감 척도의 측정모형에서의 요인부하량 모수추정치 및 제곱다중상관계수

	추정치(표준추정치)	표준오차	t	제곱다중상관계수(R^2)
문항3	1.00(.71)	-	-	.50
문항5	.91(.69)	.12	7.95***	.48
문항6	.88(.62)	.12	7.15***	.39
문항7	1.20(.69)	.15	7.94***	.48
문항8	1.24(.72)	.15	8.22***	.51
문항10	.99(.73)	.12	8.40***	.54
문항11	1.16(.74)	.14	8.53***	.55
문항12	.81(.79)	.09	9.04***	.62
문항13	.96(.70)	.12	8.06***	.49
문항14	1.07(.88)	.11	10.01***	.77
문항15	1.07(.71)	.13	8.12***	.50
문항16	.67(.65)	.09	7.42***	.42

***p<.001

www.kci.go.kr

가 다른 집단에서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요인 부하량에 대한 추정치와 제곱다중상관 계수를 살펴보았다. 요인 부하량은 .50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각 요인 부하량이 모두 표준오차의 두 배 이상이고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구성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요인 부하량 표준 추정치 계수는 .62~.88로 모두 .50 이상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1 미만으로 보고되어, 패배감의 구성타당도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와 간명지수 그리고 카이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를 고려하였다. 모형 적합도 수용 범위는 CFI와 TLI가 .90 이상(홍세희, 2000), PCFI와 PNFI는 .60~.90, RMSEA는 .05~.08이 추천된다(Steiger, 1990; 배병렬, 2009). 본 연구의 적합도 지수는 CFI= .96, TLI=.95, PCFI= .78, PNFI= .74, RMSEA= .074(.049~.098)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수렴 및 공존타당도

한국판 패배감 척도의 수렴 및 공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패배감과 높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3). 분석결과, 한국판 패배감 척도는 내적 속박감(r=.72, p<.001) 및 외적 속박

표 3. 한국판 패배감 척도와 내적 속박감, 외적 속박감, 우울, 불안, 자살사고와의 상관계수

척도	내적 속박감	외적 속박감	우울	불안	자살사고
한국판 패배감	.72***	.69***	.56***	.63***	.48***

***p<.001

표 4. 정신건강 관련변인들에 대한 패배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ΔR^2	β
우울	1	내적 속박감	.32***	.22*
		외적 속박감		.15
	2	패배감	.04***	.29***
불안	1	내적 속박감	.42***	.15
		외적 속박감		.27***
	2	패배감	.05***	.34***
자살사고	1	내적 속박감	.35***	-.04
		외적 속박감		.51***
	2	패배감	.01*	.16*

***p<.001, *p<.05

www.kci.go.kr

감(r=.6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고, 우울(r=.56, p<.001)과 불안(r=.63, p<.001), 자살사고(r=.48, p<.001)와도 역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증분타당도

한국판 패배감 척도의 증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한국판 패배감 척도가 다른 정신건강 척도들에 대한 설명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패배감은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우울($\triangle R^2$=.04, β=.29, p<.001), 불안($\triangle R^2$=.05, β=.34, p<.001), 자살사고($\triangle R^2$=.01, β=.16, p<.05)에 대해 유의한 증분 설명량을 보여 증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판 패배감 척도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구성타당도와 수렴, 공존타당도, 그리고 증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연구 2: 패배감과 속박감의 요인구조

Gilbert와 Allan(1998)이 패배감과 속박감 척도를 개발한 이후 패배감과 속박감은 무쾌감증, 우울, 자살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사람의 우울이나 자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들 두 변인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배감을 경험한 이후 좌절된 도피행동을 보이는 동물들과는 달리 행동 외에도 내적인 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개념이 명확히 구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패배감과 속박감을 단일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Rooke & Birchwood, 1998; Johnson, Gooding, & Tarrier, 2008). 이러한 주장은 패배감과 속박감을,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보았던 초기의 이론과는 상반된 것이다.

Taylor와 동료들(2009)은 처음에 Gilbert와 Allan(1998)이 두 척도를 개발할 때 두 개념이 서로 다른 요인인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하지 않았고 각각의 척도에 대해서만 요인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평행분석을 통해 패배감 척도와 속박감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한 결과 두 요인은 단일 요인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O'Connor 등(2013)은 4년 간의 종단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패배감과 속박감을 분리하여 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논의했으며, Rasmussen과 동료들(2010)의 연구 및 이소영 등(2014)의 연구에서도 패배감이 속박감을 매개로 하여 우울이나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을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여전히 패배감과 속박감 두 요인이 서로 다른 요인인지 아니면 단일 요인인지에 대한 논쟁은 진행중인 듯하다.

패배감과 속박감이 우울이나 불안, 자살 등 정신병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인 만큼, 패배감과 속박감이 단일 요인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요인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국

www.kci.go.kr

내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확인해 보고자하며, Taylor 등(2009)의 연구결과와 비교를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탐색적 요인분석(주축분해법)과 평행분석 방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되어 왔던 스크리 검사는 연결선이 급경사를 이루면 각 성분이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는데(양병화, 1998),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명확한 준거 없이 결과 해석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고유값이 1이 넘으면 하나의 요인으로 해석될 있다는 K1 법칙(Kaiser's eigenvalue-greater-than-one rule)도 기계적인 해석이라는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을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Ledesma & Valero-Mora, 2007). Taylor와 동료들(2009)도 평행분석이 스크리 검사와 K1 법칙에 비해 요인수를 더 정확히 산출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그들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패배감과 속박감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은 연구 1과 동일한 대학생 287명이었으며, 연구 1에서 사용했던 척도 중 이종선과 조현주(2012)가 타당화한 속박감 척도와 연구 1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12문항의 한국판 패배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 과

패배감과 속박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주축분해법(오블리민 회전)을 실시한 결과,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측정치는 .96으로 표본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MO 값은 .90 이상이면 매우 좋고, .80 정도면 양호, .60~.70 정도면 보통이고, .50 이하면 부적절한 것으로 해석한다(양병화, 1998). Bartlett의 구형성 검증도 $\chi^2(378)=5253.58$, $p<.001$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분이(Communality)가 1.0에 가까우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양병화, 1998), 본 연구 자료에서 초기 공통분이는 .41~ .76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산출되었는데, 3개의 고유값(Eigenvalue)은 13.26, 2.18, 1.27이었고, 각각의 설명량은 47.35%, 7.80%, 4.5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스크리 검사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또한 스크리 검사와 K1 법칙에 비해 연구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사용하기도 한다. 평행분석은 우연에 의해 기대되는 고유값의 평균값을 초과하는 요인 수를 바탕으로 최종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Taylor et al., 2009), 스크리 검사 및 K1 법칙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Ledesma & Valero-Mora, 2007).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동료들(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O'Connor(2000)의 SPSS syntax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 5개의 고유값은 12.86, 1.80, 0.85, 0.52, 0.43이며, 우연에 의해 기대되는 고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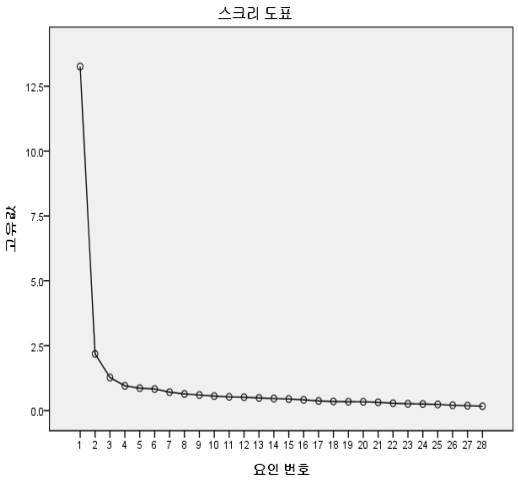

그림 1. 스크리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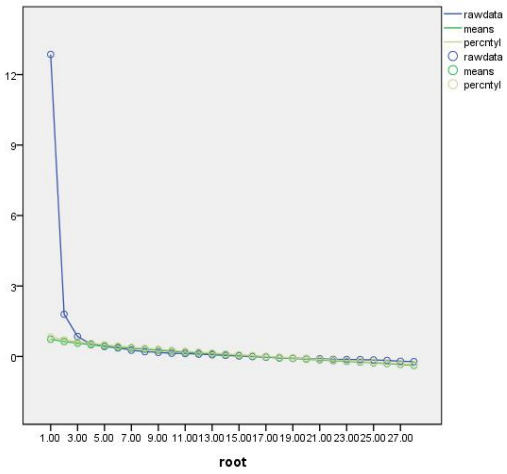

그림 2. 순차도표

유값의 처음 5개의 평균값은 0.73, 0.64, 0.57, 0.50, 0.45로 처음 4개의 고유값이 평균값보다 높았다.

즉, 평행분석에서 추출된 요인 수는 4개이다. 평균값보다 큰 고유값이 한 개 이상이라는 것은, 속박감과 패배감이 단일 요인이 아니며 여러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O'Connor(2000)의 SPSS syntax를 활용하여 속박감과 패배감을 단일 요인이라고 검증한 Taylor 등(2009)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기술된 수치나 그림 2의 순차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처음 2개 요인의 고유값은 평균값보다 두 배 이상 큰데 반해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인의 고유값은 평균값과 유사하며, 특히 네 번째 고유값은 .52로 평균값인 .50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패배감과 속박감이 단일요인이 아니라 다수의 요인으로 구성된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할 때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될 경우 가장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행분석 결과에서는 4개의 요인이 산출되기는 했으나 이론적 개념을 고려할 때 4요인 모델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배감과 속박감의 이론적 요인구조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2요인 모델(패배감, 속박감)과 3요인 모델(패배감, 내적 속박감, 외적 속박감)을 가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러나 2요인 모델(CFI=.872, TLI=.861, PCFI=.805, PNFI=.754, RMSEA=.081)과 3요인 모델(CFI=.884, TLI=.873, PCFI=.811, PNFI=.760, RMSEA=.077) 모두 적합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대규모 샘플을 바탕으로 하여 패배감과 속박감의 다요인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2요인 모델의 표준추정치는 속박감이 .62~.80, 패배감이 .62~.85이었고, 3요인 모델의 표준추정치는 내적 속박감이 .63~.81, 외적 속박감이 .58~.81, 패배감이 .61~.85이었다(p< .001). 모델의 적합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www.kci.go.kr

표 5. 속박감과 패배감 3요인 모델의 요인부하량 모수추정치 및 제곱다중상관계수

		추정치 (표준추정치)	표준오차	t	제곱다중 상관계수(R^2)
내적속박감	1	1.00(.77)	-	-	.59
	2	.75(.63)	.07	10.82***	.40
	3	1.17(.81)	.08	14.45***	.65
	4	.98(.77)	.07	13.58***	.59
	5	1.23(.75)	.09	13.24***	.56
	6	.72(.75)	.06	13.18***	.56
외적속박감	7	1.00(.69)	-	-	.47
	8	1.54(.73)	.13	11.52***	.53
	9	.97(.66)	.09	10.41***	.43
	10	1.80(.81)	.14	12.65***	.66
	11	1.35(.72)	.12	11.32***	.52
	12	1.51(.73)	.13	11.48***	.53
	13	1.24(.72)	.11	11.29***	.51
	14	1.13(.58)	.12	9.28***	.34
	15	1.73(.74)	.15	11.61***	.54
	16	1.00(.66)	.10	10.51***	.44
패배감	3	1.00(.71)	-	-	.51
	5	1.05(.74)	.09	12.18***	.55
	6	.82(.62)	.08	10.18***	.38
	7	1.32(.75)	.11	12.34***	.56
	8	1.33(.73)	.11	12.02***	.53
	10	1.05(.76)	.08	12.49***	.57
	11	1.07(.66)	.10	10.86***	.44
	12	.94(.80)	.07	13.24***	.64
	13	1.04(.67)	.09	11.00***	.45
	14	1.04(.85)	.07	14.03***	.72
	15	1.18(.72)	.10	11.91***	.52
	16	.75(.70)	.07	11.48***	.49

***p<.001

www.kci.go.kr

아니었으나 χ^2검증결과 3요인 모델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고, 3요인 모델의 요인 부하량 추정치와 제곱다중상관계수는 표 5와 같다.

논 의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Gilbert와 Allan (1998)이 개발한 패배감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채점 문항만 별도의 한 요인으로 구성된 2요인이 산출되었다. Gilbert와 Allan(1998)의 연구결과에서도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와 동일하게 역채점 문항만 별도 요인으로 구성된 2요인이 산출되었는데, 이들은 스크리 검사를 토대로 패배감을 단일요인으로 판단하고 요인수를 지정한 후 설명량을 다시 분석하였다. Gilbert와 Allan(1998)의 연구에서는 문항총점 간 상관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 문항의 문항총점 간 상관이 매우 낮아 이질적인 요인으로 판단되었으며(2, 4, 9번 문항), 1번 문항은 1요인과 2요인 모두에 .40 미만의 유사한 요인 부하량을 보이고 있어 이들 4개 문항은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최종 문항에서 제외하였다(1. 나는 내 인생에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다; 2. 나는 성공한 사람인 것 같다; 4. 나는 기본적으로 승자인 것 같다; 9. 나는 어떤 일이 주어져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성공 및 자신감과 관련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역채점 세 문항이 개별요인으로 묶인 것은 Gilbert와 Allan(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문항들이 이질적인 요인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앞의 결과에서 설명하였듯이, 성공 경험을 하지 않는 것과 패배감을 경험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일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성공 경험을 하지 않는 것에는 평범하거나 실패 혹은 패배를 하지 않는 경험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패배한 것과는 다른 경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역채점 문항인 2, 4, 9번이 1요인과 서로 다른 개념을 구성하는 이질적인 요인으로 묶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독립적인 요인이며(Watson, Clark, & Tellegen, 1988) 낮은 긍정정서가 높은 부정정서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역채점 문항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이룬 것'과 관련되는 1번 문항은 두 요인 모두에 유사한 요인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항은 1요인으로 묶여지는 다른 문항들과 비교해서 패배감을 완전히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척도를 처음 구성한 Gilbert와 Allan(1998)의 연구와 터키판 패배감 척도 연구(Ahmet et al., 2013)에서 16문항의 패배감 척도를 단일요인으로 타당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네 문항이 이질적인 문항으로 드러난 것이 위에서 논의된 문항 내용의 속성인 것인지, 아니면 본 자료의 특성이거나 문화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중 언어자의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부적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원저자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역채점 문항들이 다른 요인으로 묶인 점을 고려한다면 오역의 문제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

www.kci.go.kr

된다.

둘째, 4개 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의 한국판 패배감 척도에 대한 Cronbach α= .93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이고 있었고, 문항-총점 간 상관은 .66~.85,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6(p<.001)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Gilbert와 Allan(1998)의 연구와 터키판 패배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Ahmet et al., 2013)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Gilbert와 Allan(1998)의 연구에서 패배감의 내적 일치도는 학생 집단에서 .94, 우울 집단에서 .93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터키판 타당화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8이었다(Ahmet et al., 2013).

셋째, Gilbert와 Allan(1998)의 연구에서는 패배감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다른 표본 집단을 이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의 검증성을 높였다. 12문항의 한국판 패배감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 표준추정치는 .62~.88로 모두 .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도 CFI= .96, TLI= .95, RMSEA= .07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 Ahmet 등(2013)의 터키판 타당화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6문항이 단일요인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요인 부하량이 .31~.76으로 낮은 수치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적합도 지수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CFI= .97, RMSEA= .07).

넷째,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결과 패배감과 상관이 있다고 알려진 내적 속박감, 외적 속박감, 우울, 불안, 자살사고와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패배감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을 통제한 후에도 패배감은 우울, 불안, 자살사고의 설명량을 유의하게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나 증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패배감 척도는 속박감 척도와 함께 또는 속박감 척도와 독립적으로도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의 정신병리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여준 패배감, 속박감 및 우울 간 유의한 상관은 Gilbert와 Allan(1998)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한국판 패배감 척도가 정신병리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 유용한 변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요약하면, 한국판 패배감 척도는 Gilbert와 Allan(1998)의 원래 문항과 달리 4문항이 제외되고 총 12문항으로 구성되기는 했지만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우울이나 불안, 또는 자살사고와 같은 정신병리 관련 연구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한국판 패배감 척도와 속박감 척도가 하나의 요인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요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패배감과 속박감은 우울이나 무쾌감증, 불안, 자살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요인이냐 아니면 서로 구분된 변인이냐에 따른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산출되었고, 평행분석 결과에서도 속박감과 패배감 척도는 단일 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속박감과 패배감 척도가 단일 요인이 아니라는 결과는 두 변인이 단일 변인이라고 제안한 Taylor와 동료들(2009)의 연구결과

www.kci.go.kr

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패배감과 속박감을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거나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한 Sloman, Gilbert 및 Hasey(2003)과 O'Connor 등(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K1 법칙이나 스크리 검사보다 요인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더 탁월한 방법이라고 알려진(Ledesma & Valero-Mara, 2007) 평행분석 결과에서는 4개의 요인이 산출되었는데, 네 번째 고유값은 우연에 의해 기대되는 고유값의 평균값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약 본 연구의 결과대로 패배감과 속박감이 단일 요인이 아닌 다요인이라고 한다면, 본 연구에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들에 기반할 때, 3개 요인(패배감, 내적 속박감, 외적 속박감)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령, 국내에서는 패배감과 속박감의 요인구조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속박감에 대해서는 요인구조를 검증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종선과 조현주(2012)의 연구에서는 외적 속박감과 내적 속박감 각각의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 후 두 척도를 함께 투입하여도 요인이 나뉘는지를 재검증하여 두 개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해외 연구에서도 내적 속박감은 자기비난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turman & Mongrain, 2005), 외적 속박감은 자살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안하고 있는 바(Taylor et al, 2010; 이종선 등, 2012), 두 개념이 서로 다른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모델의 적합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과 좀 더 많은 샘플수를 바탕으로 하여 패배감과 외적 속박감, 내적 속박감의 요인구조를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향후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 및 치료적 개입이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판 패배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 정신병리 연구에 있어 중요한 패배감과 속박감이 단일 요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대상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패배감이나 속박감은 여러 정신병리 현상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실제 임상장면에서까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외에도 우울군, 불안군 등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패배감 척도에서 4개 문항이 제외되어 원척도와 문항수가 달라졌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의 제한점인지 아니면 국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과 보완해야할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판 패배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패배감과 속박감이 단일 요인이 아닌 다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패배감 및 속박감 척도가 다양한 정신병리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가령 Williams(2001)의 고통호소 모델(Cry of Pain Model: CoP 모델)에 따르면,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패배감이 유발되고 이 스트레스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속박감을 통해 자살에 이르게 되는데(Rasmussen 등, 2010에서 재

www.kci.go.kr

인용), 후속 종단 연구에서는 CoP 모델 검증을 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즉,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패배감과 속박감이라는 서로 다른 요인이 여러 가지 다른 정신병리의 생성 및 치료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연구결과가 효과적인 치료과정에 대한 연구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권정혜, 이소영 (2008). 부부의 외적 속박감 및 상대적 지위 지각에 따른 분노표현과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69-84.

박광배, 신민섭 (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 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박영주, 신나미, 한금선, 강현철, 천숙희, 신현정 (2011).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 실태 및 속박감의 매개효과. 대한간호학회지, 41(5), 663-672.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오세만, 민경준, 박두병 (1999). 병원 불안-우울 척도에 관한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38(2), 289-296.

이소영, 조현주, 권정혜, 이종선 (2014). 패배감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식과 속박감의 순차중다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2), 285-303.

이종선, 조현주 (2012). 한국판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239-259.

이종선, 강민철, 조현주 (2012). 외적 속박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및 정서대처 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4), 883-905.

이학식, 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 AMOS 7.0. 서울: 법문사.

천숙희 (2008). 청소녀의 지각된 속박감, 분노 및 우울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4), 239-247.

천숙희 (2012).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속박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3), 223-235.

최윤영, 조현주, 권정혜, 이종선 (2013). 우울취약성과 자살사고의 관계: 속박패배감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3), 329-349.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2001년 3월 워크샵 자료집, 한국임상심리학회.

Ahmet, A., Recep, U., Nihan, Ç, Ümran, A. (2013).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urkish version of the defeat scale. *International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5(3),* 660-666.

Anderson, J. C., & Gerbing, G.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www.kci.go.kr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Fabrige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

Gilbert, P. & Allen, S. (1998).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arreste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of an evolutionary view. *Psychological Medicine, 28,* 585-598.

Gilbert, P. & Miles, N. V. M (2000). Sensitivity to social put-down: it's relationship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shame, social anxiety, depression, anger and self-other blam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4),* 757-774.

Gilbert, P., Allan, S., Brough, S., Melley, S., & Miles, J. N. V. (2002). Relationship of anhedonia and anxiety to social rank, defeat and entrap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1*, 141-151.

Johnson, J., Gooding, P., & Tarrier, N. (2008). Suicide risk in schizophrenia: Explanatory models and clinical implication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1,* 55-77.

Ledesma, R. D., & Valero-Mora, P. (2007). Determining the number of factors to retain in EFA: an easy to use computer program for carring out parallel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2(2)*, 1-11.

O'Connor, B. P. (2000). SPSS and SAS program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using parallel analysis and Velicer's MAP test.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ation, and Computers, 32,* 396-402.

O'Connor, B. P. "*SPSS, SAS, and MATLAB Program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and factors using parallel analysis and Velicer's MAP Test.*" https://people.ok.ubc.ca/brioconn/nfactors/nfactors.html

O'Connor, R. C., Smyth, R., Ferguson, E., Ryan, C., & Williams, J. G. (2013). Psychological process and repeat suicidal behavior: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1(6),* 1137-1143.

Panagioti, M., Gooding, P., Taylor, P., Tarrier, N. (2012). Negative self-appraisals and suicidal behavior among trauma victims experiencing PTSD symptoms: the mediating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Depression and Anxiety, 29,* 187-194.

Rasmussen, S. A., Fraser, L., Gotz, M., MacHale, S., Mackie, R., Masterton, G., McConachie, S., & O'Connor, R. C. (2010). Elaborating the cry of pain model of suicidality: testing a psychological model in a sample of first-time and repeat self-harm pati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 15-30.

Rooke, O., & Birchwood, M. (1998). Loss, humiliation and entrapment as appraisals of schizophrenic illness: A prospective study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259-268.

Sloman, L., Gilbert, P., & Hasey, G. (2003). Evolved mechanisms in depression: The role

www.kci.go.kr

and interaction of attachment and social rank in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 107-121.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Sturman, E. D., & Mongrain, M. (2005). Self-criticism and major depress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505-519.

Tang, N. K. Y, Goodchild, C. E., Hester, J., & Salkovskis, P. M. (2010). Mental defeat is linked to interference, distress and disability in chronic pain. *Pain, 149,* 547-554.

Taylor, P. J., Gooding, P., Wood, A. M., & Tarrier, N. (2011).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in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e. *Psychological Bulletin, 137(3)*, 391-420.

Taylor, P. J., Wood, A. M., Gooding, P., & Terrier, N. (2010). Appraisals and suicidality: the mediating role of defat and entrapment.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4(3),* 236-247.

Taylor, P. J., Wood, A. M., Gooding, P., Johnson, J., & Tarrier, N. (2009). Are defeat and entrapment best defined as a single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795-797.

Tedesch, R., & Calhoun, I. G. (1996).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2.

Trachsel, M., Krieger, T., Gilbert, P., & Holtforth, M. G. (2010). Testing a German adaptation of the entrapment scale and assessing the relation to depression. *Depression Research and Treatment,* 1-10.

Watson, D., Clark, L. A.,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Zigmond, A. S., & Snaith, R. P. (1983).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cta Pscyhiatrica Scandinavica, 67(6),* 361-370.

원고접수일 : 2014. 03. 03.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9. 11.
게재결정일 : 2014. 11. 07.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5, Vol. 34, No. 1, 17-36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efeat Scale; and Factor Construct of Defeat and Entrapment

So-Young Lee[1)] Hyunju Cho[2)] Jung-Hye Kwon[1)] Jong-Sun Lee[1)]

[1)]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2)]Department of Psychology Yeungnam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Defeat Scale(K-DS) developed by Gilbert and Allan(1998), and examined defeat and entrapment may be best conceptualized as a single factor or not. University students who agreed to take part in this study completed the defeat/entrapment scale along with other psychometric measures. In study 1,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single factor structure accounted for 57.89% of the variance on the K-DS including 12 item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emonstrated a satisfactory construct validity by showing good factor loadings and fit indices also showed the goodness-of-fit for a single factor model. The internal consistency, test-retest reliability, convergent validity and incremental validity were also acceptable. In study 2, based on the result of parallel analysis, defeat and entrapment may be best conceptualized as multi factor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defeat, entrapment, reliability, validity, construct

www.kci.go.kr